

02

February 2020

VOL. 385

진포
GUNPO MONTHLY MAGAZINE



CONTENTS

February 2020
VOL. 385

함께 ON 군포

군포오감	04
in & 人	08

가치 ON 군포

기획특집	12
헬로우 군포	14



군포시청과 SNS로 친구맺기

- www.facebook.com/gunpocity
- blog.naver.com/o2gunpo
- www.instagram.com/gunpocity
- www.twitter.com/gunpocity
- www.youtube.com/user/gunpocity

군포소식 계속 사랑해 주세요!

시정소식지(군포소식)은 1995년 발행을 시작해 2019년 까지 신문 형태(타블로이드판)로 제작했으나 제385호(2020년 2월호)부터 책자형으로 변경합니다. '시정소식지 +집지' 구성으로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를 담을 새롭고 더 알찬 소식을 전할 <군포소식>을 계속 사랑해 주세요.

군포소식

발행 2020년 1월
발행인 군포시장
발행처 군포시장 홍보기획과
홈페이지 www.gunpo.go.kr
디자인인쇄 경인M&B

정기구독 신청(무료)

☎ 031-390-0062, 0753

✉ gunpo-city@naver.com

※ 구독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군포소식>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삽화는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감 ON 군포

공감+공간	16
이야기가 있는 영화	18
핫 트렌드	20

행복 ON 군포

보건 복지 생활정보	22
희망소식	23
군포소식	24
군포교육·문화	28
의정소식	30

참여 ON 군포

독자참여	32
문화 캘린더	35



자유롭게 피어나기.
이것이 내가 내린 성공의 정의다.

- 게리 스펜스

군포시 2020 달라지는 제도

2020 경자년을 맞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시행될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01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자부담 대상자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산본보건지소 ☎ 390-8951

보건 분야



기존

- 영양플러스사업
 - 대상 : 임신부,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 내용 : 보충식품 공급 및 영양교육
 - ※ 보충식품비 본인부담금 적용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전액 무료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80% 이하 ⇒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달라진 내용

-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자부담 대상자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적용 : 2020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80% 이하 대상자
 - 지원내용 : 영양플러스사업 자부담 대상자 보충식품비의 10%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근거 및 시행시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
(2020. 1.)

기존

- 각 부서에서 전화민원 응대

달라진 내용

- 민원콜센터 운영 확대
 - 주요내용
 - 민원콜센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수도요금 등 각종 전화민원 응대
 -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는 2020년 9월 이후 운영

근거 및 시행시기

군포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 1.)

민원콜센터 구축 운영 확대

민원봉사과 ☎ 390-0971

행정 분야



02

03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청소행정과 ☎ 390-0353

환경 분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시행 2020. 6. 1.)

구분	규격	판매가격
일반용 재사용	1L	30 ➡ 40
	3L	90 ➡ 110
	5L	160 ➡ 200
	10L	310 ➡ 380
	20L	620 ➡ 760
	50L	1,540 ➡ 1,880
사업장용	100L	3,080 ➡ 3,760
	50L	2,400 ➡ 2,820
불연성 전용마대	100L	4,800 ➡ 5,640
	20L	3,000 ➡ 4,000

근거 및 시행시기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6. 1.)

기준

1. 동일인이 월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그 초과된 포상금
2.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달라진 내용

1.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분기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연간 포상금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군포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6.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된 경우
7. 동일 사안으로 다른 법령 등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8.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불가 조건

청소행정과 ☎ 390-0353

환경 분야



근거 및 시행시기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회 의결후 공포시행)

05

대형폐기물 스티커 종류 증가

청소행정과 ☎ 390-0353

환경 분야

기준

2천원권, 3천원권, 1만원권(3종)

달라진 내용

2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4종)

경기도 2020 달라지는 제도

2020 경자년을 맞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시행될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01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 ☎ 8008-3451

청년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
- 지원내용 :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원
(임의 가입자 월 최저보험료) 지원 추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완료 후 추진

02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 ☎ 8008-3438

미취업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면접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수당 지원

-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34세 이하 미취업청년
- 내용 : 면접수당(1인당 1회 35천원, 최대 6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근거 및 시행시기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2조 ('20. 5. 예정)

03

청년저축계좌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 390-0657

근로능력있는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의 탈빈곤 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

- 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 (15세~39세)
- 내용 :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 추가 매칭
- 시기 : '20. 4월 (예정)

04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보건소(보건행정과) ☎ 390-8999



기존

- 인플루엔자 3가 백신 지원
-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지원

달라진 내용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지원
-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중학교 1학년 지원

근거 및 시행시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0. 9. 1.)

05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카페 운영

축산산림국(동물보호과)

☎ 8030-4413

카페형 유기동물 입양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동물보호소가 아닌 도심카페에서 유기동물 입양 지원

근거 및 시행시기

동물보호법 제4조('20. 1. 1.)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11조



06

보건소 연명의료등록 접수

보건소(보건민원팀) ☎ 390-8944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 활성화

- 연명의료등록 신청 보건소 전담
- 사업량 : 13개 보건소
(부천 3개, 광명, 군포, 의왕, 과천
고양 3개, 의정부, 구리, 포천)

근거 및 시행시기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 및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20. 5. 예정)

07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 개편 및 디자인 도입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 390-0657

기존

승용차(자가용, 렌터카) 등록 번호 체계 개편

- 등록번호 자릿수 변경(7자리 → 8자리)

달라진 내용

- 등록번호 체계 개편(7자리 → 8자리)에 추가로
- 승용차 번호판 반사필름 재질 적용 및 디자인
도입 예정 ('20. 7.)
 - 재귀반사식 필름 재질 적용
 - 국가상징문양 홀로그램 등 적용

08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국(버스정책과) ☎ 8030-3822



-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도내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 신설
- 만 13~23세 청소년에게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 지원시기 : '20. 7월 (예정)
 - 지원대상 : 만13~23세 청소년 약 43만명
 - 지원내용 : 年12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근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3조 및 15조 ('19. 11. 12.)

09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 알림 및 무정차신고 서비스 도입

- 경기버스정보 앱을 설치하고 버스 승차대기를 누르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정차 유도
 - 무정차 운행 근절을 위해 무정차 신고서비스 제공
 - 무정차 집중관리 시내버스 노선에 시범 실시 후 확대

근거 및 시행시기

경기도 자체계획 ('20. 12. 예정)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교통국(교통정보과)

☎ 8008-6834

Special Theme

‘학병 출신 마지막 광복군’ 101세 김유길 선생

못다 이룬 완전한 독립을 꿈꾸다



글. 경인일보 황성규 기자

역사는 어제를 기록하지만 내일을 여는 키가 되기도 한다. 올해로 101주년을 맞는 3.1 운동이 주는 의미는 그래서 더욱 크다. 이에 군포를 대표하는 학병 출신 마지막 광복군 김유길 선생을 만나 3.1운동과 광복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101년 전 오늘을 만나다

교과서나 책을 통해, 또 어른들의 입을 통해 과거 일제시대의 참상을 간접 경험한 젊은 세대 역시 최근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막연했던 반감을 직접적인 분노로 전환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기에 잊어선 안 된다는 교훈은 현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통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몸소 겪은 이들은 지금의 한일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3·1만세운동이 열린 1919년에 태어나 독립운동을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한국광복군 출신 김유길(101) 선생을 만나기 위해 군포시 당동에 위치한 그의 집을 찾았다.

학병 출신 마지막 광복군

선생과의 만남을 앞두고 과거 타 매체 인터뷰 영상을 비롯해 각종 역사적 문헌과 기록 등 자료 수집에

매진하며 질문을 구상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강제로 중국 내 일본군 부대에 끌려갔지만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해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도착, 이후 한국 광복군에 편성돼 독립운동에 매진한 학병(學兵) 출신 중 한 명이다. 고(故) 장준하·김준업 선생 등이 것처럼 일본군을 탈출해 6천리 장정길을 함께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대표적인 인물이다.

과거 장준하기념사업회의 장정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가 있어 학병들의 6천리 장정길을 따라가 본 적이 있었기에, 학병 출신 광복군으로는 유일한 생존자인 선생과의 만남은 큰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와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다. 올해 나이 101세. 평소 건강관리를 잘한 덕분에 지금까지도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세월의 무게감까지 견뎌낼 순 없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보다, 한 세기를 살아온 그의 머릿속에 저장된 수많은 장면들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점이 안타까웠다. 선생의 기억과 함께 과거 우리 역사의 일부 또한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충청을 찾아가는 게 목적이었어”

준비한 질문을 쏟아내고 답변을 듣는 식의 인터뷰는 어려웠다. 펜과 수첩을 내려놓고 의자를 바짝 당겨 선생 가까이 앉았다. 그리고 마치 할아버지에게 옛날이야기를 전해 듣듯 천천히 조금씩 대화를 시도했다. 대면 직후 20여 분간 굳게 닫혀 있던 그의 입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오랜 침묵을 깬 그의 첫 마디는 “충청을 찾아가는 게 목적이었다.”였다. 선생은 일본의 학도지원병이라는 명목 아래 강제징집 대상에 포함돼 1944년 1월 중국 내 일본 군에 입대했다. 하지만 5개월만인 6월 30일 같은 부대 소속 김영호와 함께 탈출을 감행했다. 당시 충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서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난다는 일념으로,



지난 2014년 5월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제막식에 당시 한국광복회 부회장이었던 김유길 선생이 참석해 비석을 어루만지고 있다. 김 선생은 과거 제2지대에 편성돼 한미연합 국내 진공작전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했다. / 김유길 선생 측 제공

그는 목숨을 걸고 광활한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6천리 대장정에 뛰어들었다.

그는 “돈이 없고 먹질 못해서 (충청까지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며 힘들었던 당시를 회상했다. 한국광복군 출신 윤광빈 선생이 지난해 타계한 데 이어 지난 2019년 2월 김우전 선생마저 유명을 달리했다. 선생과 같은 학병 출신의 광복군으로 과거 생사의 갈림길을 함께한 동지이자 전우였던 아들이 이젠 모두 그의 곁을 떠났다.

그들을 떠올리며 선생은 상념에 젖은 듯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한 채, 얼굴 표정만으로 복잡한 심경을 대신 전했다. 그리고는 다시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그는 “일본을 절대 그냥 보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 우리 힘으로 일본을 때려서 사죄를 받아내고 내쫓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길러야 했지”라며 광복군에 합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시엔 목숨을 내놓겠다는 생각뿐이었어. 나라를 위해선 그럴 수밖에”라며 “독립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저 물 흘러가듯이… 삶 자체가 그냥 독립운동이었던 것 같아”라고 털어놓는다.

“안전한 독립을 바랐는데…”

광복군은 미국과 연합한 한반도 침투작전을 통해 일본을 몰아낼 계획이었다. 선생은 광복군 제2지대에 편성돼 미 전략정보국(OSS)과 함께 연일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다.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에 가물가물했던 그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그는 “미국 전략국이랑 같이 특수 훈련을 받는데, 따따따 따따 따따 따따… 이렇게 신호가 와. 그러면 그게 ABC가 되는 거거든. 그 암호를 번역하는 일을 했었어.”라며 “매일 열심히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OSS 요원들이 떠들더라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일본이 항복을 했다는 거야. 무조건 항복이라고…”라고 말했다.

선생은 당시 미군과 영어로 대화를 나눈 그 문장 그대로 또렷이 기억해냈다. 하지만 이내 “우리 힘으로 내쫓지 못했으니까 완전한 독립이 아닌 것 같아서… 영 시원치가



일제강점기 학병 출신 마지막 한국광복군 김유길 선생이 지난 1979년 과거 광복군 동지들과 함께 집필한 '장정 6천리-한광반 학병 33인의 항일투쟁기' 책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1944년 10월 27일 한광반(한국광복군 훈련반) 중경 출발 기념 사진 / 김유길 선생 측 제공

않았지"라며 긴 한숨을 내신다.

해방 이후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땅에 돌아온 그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1남 3녀의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사의 갈림길을 전전하던 중국에서의 험난했던 인생에 지쳤던 걸까. 선생은 평범한 삶을 살았다. 일반 회사에 다녔고, 자신의 특기인 영어를 살려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한국독립유공자협회의 창설을 위해 노력했지만, 직책은 맡지 않았다. 선생의 아내는 나서기를 꺼려 하는 그의 조용한 성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혼한 뒤로도 한동안 남편이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실조차 몰랐다는 게 아내의 말이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2시간 넘게 이어진 그와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나라'였다. 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우리 땀 진짜 나라를 생각하며 살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게 나라를 진짜 위하는 길인지 이런 생각은 크게 안 하는 것 같다."라며 "하기야 우리 전쟁 시절을 살았고 지금은 평화 시대니까 그럴겠지만, 그래도 나

라가 소중하다는 건 절대 잊어선 안 돼."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확실히 악삭빠른 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일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냐"라며 "다만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선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특히 정치가 석연치 않아"라고 전했다.

이어 "오로지 자국민들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만 옳다고 하니까, 사과를 할 줄 몰라.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과나 반성이 없어. 그래서 나쁜 거야."라며 힘줘 말한다. 과거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팔 동작을 곁들이며 우렁찬 목소리로 독립군가를 부르던 그의 모습은 이제 더는 보기 어렵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군가 한 소절을 요청해 봤다.

그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하며 노래를 시작했다. 후렴구에 한정되긴 했지만 그 부분만큼은 온전한 가사로 불렀다. 군인의 패기는 사라진 지 오래지만, 가사를 떠올리기 위해 또 음을 정확히 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노병의 모습에는 한 시대의 역사와 함께해 온 그의 인생역정이 고스란히 배어있었다. [sun9o](#)

연령 낮아지는 학교폭력, 사랑이 담긴 마음의 교류 필요

얼마 전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A양은 친구인 B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였으며, A양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더 이상 학교폭력은 중학생, 고등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다.



학 교폭력예방법에서는 신체적인 폭력 외에 사이버 따돌림과 언어폭력 등 정서적 폭력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도 정서적 폭력 피해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피해 유형별 비중(1차)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증감 (%p)
언어폭력	34.0	34.6	33.3	34.0	34.1	34.7	35.6	0.9
집단따돌림	16.6	17.0	17.3	18.3	16.6	17.2	23.2	6.0
사이버 괴롭힘	9.1	9.3	9.2	9.1	9.8	10.8	8.9	-1.9
스토킹	9.2	11.1	12.7	10.9	12.3	11.8	8.7	-3.1
신체폭행	11.7	11.5	11.9	12.1	11.7	10.0	8.6	-1.4
금품갈취	10.0	8.0	7.2	6.8	6.4	6.4	6.3	-0.1
강제 심부름	6.1	4.7	4.2	4.3	4.0	3.9	4.9	1.0
성추행·성폭행	3.3	3.8	4.2	4.5	5.1	5.2	3.9	-1.3

출처 : 교육부

행정사로서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가해학생 측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피해학생을 직접적으로 때린 적도 없고 말 한마디 잘못 한 것을 가지고 뭘 학교폭력 신고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렇듯 현재까지도 신체적 폭력 외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을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부족하다.

이에 가정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녀와의 소통, 공감, 진정한 사랑이 담긴 마음의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교에서는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닌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게 인격체를 형성 할 수 있는 꾸준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과 실천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사회가 협력체를 이루어 같이 교육을 책임 질 때 근본적인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우리나라의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그저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시작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방법을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여 학교폭력이 없는 세상이 되길 바라본다. [gun9o](#)



이보라 행정사

다음 편에서는 학교폭력 대처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숲을 지나서 가자〉

애들아 춥다 전시장에서 놀자



〈놀이숲을 지나서 가자〉 전시회가 2020년 3월 28일(토) 까지 수리산상상마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강장원, 김성원, 정효경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전시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글·사진 군포시 블로그기자 이우영

‘놀이숲을 지나서 가자’ 전시회 제목을 보자마자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라는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전시회 제목에서 숲속에서 탐험하고 도전하며 신나게 즐기는 숲속 놀이터를 연상시킵니다.

이번 전시회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예술놀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키즈 카페야? 놀이터야? 아니면 설치미술 작품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실제로 여느 전시회장과 달리 놀이터처럼 마음껏 뛰어노는 어린이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시회라면 설치미술작품이라도 인터랙티브아트 작품을 제외하면 관람객이 작품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관람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이 전시회에서는 마음껏 뛰어놀아도 됩니다. 모든 작품을 원목을 비롯한 안전한 재료로 만들었고 모서리 부분을 보족하지 않게 마감 처리해 놀이 시 위험 요소를 배제시킨 뒤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천방지축 어린이는 좀만 방심하면 다칠 수 있으니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동반한 상태에서 놀아야 되겠죠? 신나게 놀다가 बे개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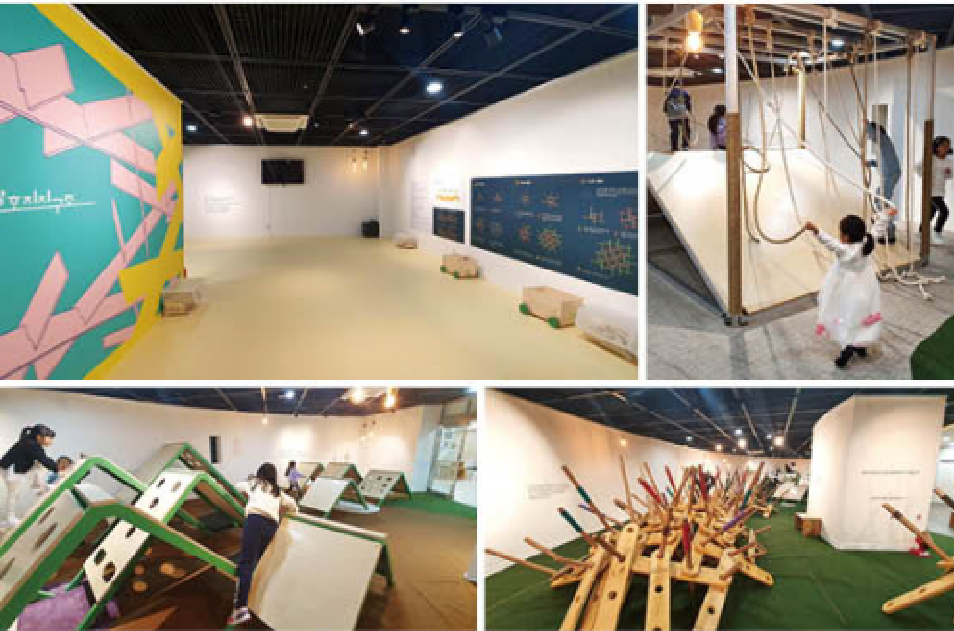
보이는 작품에서는 잠시 누워서 휴식을 취해도 됩니다.

강장원 작가의 〈숲속의 미끄럼틀〉

이 작품은 강장원 작가의 숲속의 미끄럼틀 동반과 하강이라는 신체적 놀이의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다양한 동반 방식과 장애, 충분한 수고로움, 하강의 넉넉한 폭과 변주가 있었던 숲 속 그 어딘가에 있었을 미끄럼틀을 연상하게 합니다. 힘들게 올라가자면 내려갈 때는 가속도가 붙어 승한 번에 내려가죠. 스릴감 넘치는 놀이를 하다 보면 절로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김성원 작가의 〈흔들리는 장대 숲 길〉

김성원 작가의 흔들리는 장대 숲 길은 상호지지구조로 짚은 부재들이 서로 지지하도록 결속한 구조입니다. 목판으로 만든 상호지지구조에 이동 하중이 가해지면 하중이 분산되며 가볍게 상하로 출렁거립니다. 흔들리는 장대 숲 길은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신체적 미세 조정 능력과 균형 감각 및 이동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또한 고정된 놀이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뀌고 변할 수 있습니다.



정효경 작가의 <이리저리 첩첩산중>

정효경 작가의 이리저리 첩첩산중은 이리 저리 첩첩산중의 크고 작은 삼각형 구조물들은 산을 닮았습니다. 가파른 경사면을 동반하듯 오를 수도 있고 미끄러져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겹겹이 때로는 이리저리 놓인 삼각형의 구조물들은 자칫 길을 잃을 수 있는 숲속처럼 미로 같은 탐색 공간이자 아이들이 숨어드는 작은 오두막이 됩니다.

상호지지구조 전시장

전시장 맞은편에 상상실합실에서는 상호지지구조라는 주제로 전시가 이어집니다. 이 전시장에서는 신을 벗고 들어가 주로 손으로 블록 조각을 맞추는 놀이하는 공간입니다. 마음껏 몸 전체를 이용해 놀았다면 차분히 앉아서 창의적으로 마음껏 만들어보는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놀이숲을 지나서 가자>는 예술가의 조형 언어로 구현된 예술놀이터 전시입니다. 놀이터가 예술가들과 어린이들이 소통하는 창의적인 공간이 되길 바라며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서 움직임 언어를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놀이숲을 지나서 가자> 전시회는 신나게 놀면서 그저 관람만 하는 관객만이 아닌 작품의 주인공 혹은 작품 일부가 될 흥미로운 기회였습니다. 춥고 긴 겨울, 호기심 많은 자녀 손잡고 수리산상상마을에서 이색적인 전시회를 체험하

세요. 

Information

상상숲 어린이 예술놀이터
균형 탐색, 동반 하강: 놀이숲을 지나서 가자
전시연계프로그램 안내

- 📅 2019년 12월 10일(화) ~ 2020년 3월 28일(토)
(공휴일 및 일요일 휴관)
오전 9시~오후 6시
- 📍 수리산상상마을
- 🌐 www.sangsangvill.or.kr
- ☎ 390-3033~4
- 💰 무료

[구조놀이 상호지지구조] 상상실합실
내용 3개 이상의 짧은 부재를 서로 지지하도록 조합하여 유선형 구조물을 만들어요.

👤 만 5세 이상 누구나

[유아놀이 겹겹이 우르르] 상상작업실
내용 보호자와 함께 다양한 모양의 블록을 쌓고, 무너뜨려요.

👤 24개월 이상 ~ 만 5세 미만
어린이와 보호자

2월에는 강장원, 3월에는 정효경 작가와의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리산상상마을 홈페이지나 네이버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역 광장에서

다시는 없어야 할 민족의 상처를 기억하다

독립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장엄한 표정과 행진.
이에 대해 일제가 행사한 무차별적 폭력.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엔 만세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탑이
그날의 함성을 대신할 뿐이다.



군포항일독립만세운동기념탑

군포역(전철 1호선) 광장을 찾게 되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군포항일독립만세운동기념탑'. 군포시는 항일 독립 만세운동 참여자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6년 5월 군포역 광장에 이 기념탑을 세웠다.

광장 중앙에 우뚝서있는 기념탑의 높이는 11m, 가로와 세로의 너비는 각각 4m이며, 부지 면적은 396㎡이다. 기념탑은 3·1운동을 상징하는 3개의 기둥 위에 항일의 혼을 의미하는 불꽃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형상이며, 양옆에는 만세를 외치는 시위 군중과 이들을 총으로 제압하려는 일제 경찰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한편 같은 해 11월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지정하였다.



군포장 경찰 주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현재 군포역 건물 한면에 작게 세워져 있는 팻말 하나에, 100년 전 광장에 울려 퍼진 우리 선조들의 만세소리가 먹먹히 가슴으로 느껴진다. 팻말에는 '군포역 광장 군포장 경찰 주재소 3.1운동 만세 시위지는 시흥군 남면 주민들과 수원군 의왕면 주민들이 연합해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한 곳이다. 1919년 3월 31일에 시흥군 남면 주민과 수원군 의왕면 주민 약 2,000여 명이 연합하여 군포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군포장에서 독립만세는 외치며 군포장역 앞에 있는 경찰 주재소까지 행진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과 군대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면서 시위대는 해산되었다.'라고 각인되어 있다.

사료에 따르면 당시 일본은 경찰 외에도 군 병력까지 출동시켜 총을 발포하는 등 독립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해산시키기 위해 말로 다할 수 없는 만행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선량한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이었던 것.

그러했던 격전의 장소가 오늘에선 활기로 가득한 사람들이 오가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봄 기념탑부터 당정근린공원 평화의 소녀상 구간까지 꽃길 조성이 계획돼 있어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un9o](#)

이야기가 있는 명화

Frida Kahlo de Rivera, 상처입은 사슴



상처입은 사슴 30cm x 22cm, 섬유판에 유채, 1946

告解聖事[고해성사], 그리고 自畫像[자화상]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의 상처극복

다소 음산한 숲 속, 사슴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가진 기이한 형태의 생명체가 서있다. 이 생명체는 몸에 9개의 화살이 박힌 채 피를 흘리고 있어 이 숲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리고 잠시 시선을 멀리 두고 보니 곳은 날씨에 거친 파도와 심술궂은 하늘이 화폭 안의 긴박감을 더하고 있다. 바로 멕시코를 대표하는 서양화가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으로 어느 화가들의 그것과 달리 다소 추상적 이면서도 무언의 아픔이 담긴 듯하다. 당시 프리다 칼로는 전차와 버스의 충돌이라는 상상조차 힘든 교통사고를 겪은 후로 척추접합을 위한 대수술을 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그의 작품 '상처입은 사슴'은 당시의 커다란 고통에 가로막힌 자신의 상황을 심리적 묘사로 표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몸에 박혀있는 화살들은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을, 그가 서있는 화면 앞 나뭇가지는 곧 맞이하게 될 죽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의 얼굴엔 의연함으로 가득하다. 이는 부러진 나뭇가지에 피어있는 푸른 초록의 나뭇잎을 통해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이 추론 가능하다.

의대 지망생이던 프리다 칼로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았다. 또 19살이라는 한창 나이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겪고 침대신세를 지

야만하던 중 어머니가 건네준 화구로 그림을 그리며, 자연스럽게 화가의 길을 걷게 된다. 이후 22살 연상인 멕시코 화가 디에고 리베라와 혼인하였으나 계속 되는 유산과 거듭되는 수술, 그리고 남편의 무분별한 외도로 인한 이혼과 재결합 등 굴곡심한 삶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그의 삶이 이해된다면 이 자화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기괴함이 충분히 수긍가능하다.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삶을 우리가 일기를 쓰듯 그렇게 그림으로 기록했는데, 그가 남긴 작품 143점 중 70점이 자화상이다. 이에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내가 가장 잘 아는 소재가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라며 자신의 자화상에 대한 후문을 남겼다.

이처럼 프리다 칼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심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킴과 동시에 정체성을 자신의 작품에 담아냈다. 그의 고국 멕시코에는 '나팔리즘(nagualism)' 사상이 존재한다. 이는 인간이 동물로 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즈텍 문명에선 신체의 오른발을 의미하는 동물이 사슴이었다는 것도 이 자화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이며, 평소 동물을 사랑했던 프리다 칼로의 심성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텃밭 가꾸기 학생 스트레스 저항도 향상 시킨다



텃밭 활동이 학생들의 스트레스 저항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농촌진흥청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개발한 '학교 텃밭 활용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저항도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진로 계획성 16% 더 높아

농촌진흥청이 지난해인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5개월에 걸쳐 특정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형 학교 텃밭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미 참여 학생과 비교했을 때 '직업에 대한 지식'은 65%, '진로에 대한 계획성'은 16%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관련 체험을 넘어 스스로가 탐구형인지, 예술형인지 등 직업 흥미를 탐색하고, 손 재능과 대인관계능력 등을 인식해 진로를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도록 꾸려졌다. 이와 함께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주 근영중학교, 인천 간재울중학교, 오산 성호중학교에서 '주제선택형 학교 텃밭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다.

분석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칙준수', '자율성', '유능성' 등이 프로그램 참여이전과 비교해 각각 5%, 4%, 3%가 증가했다. 더불어 스트레스는 5%가 줄었고, 스트레스 저항도와 심장안정도는 각각 16%와 13%가 향상됐다. 한편 재배식물과 관리계획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요리나 공예 등으로 활용하는 과정에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돼 학부모들이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을 통해 전달되는 긍정적 변화

농촌진흥청은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맞춰 '진로탐색형 프로그램'과 '주제선택형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왔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또 '진로탐색형 프로그램'은 텃밭가꾸기로 직업에 대한 흥미와 적성, 가치관을 탐색하는 것이고, '주제선택형 프로그램'은 성취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내용이다.

농진청은 텃밭 활용 프로그램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됨에 따라 도시농업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급 확대를 위해 교사, 학부모 연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명일 도시농업과장은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끝나고 작성한 소감을 통해 '편안하다', '보람되다', '뿌듯하다', '재밌다', '신기하다', '즐겁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식물을 재배하고 이를 요리·공예 등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 혼자서는 물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자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번 방학기간을 활용해 우리 가족들만의 작지만 의미 있는 실내텃밭부터 시작해보길 바란다. aun.go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발생



질병관리본부
KCDC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은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0.1.13.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환자는
41명(사망 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기준일에 따라 현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지난 1.8. 발생한 국내 폐렴 조사대상 유증상자 검사 결과,
중국 우한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1.11.)

* 사스, 메르스 등 모든 코로나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는
판 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virus)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감염원 및 증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로 밝혀졌으나,

정확한 감염원 및 전파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기준일에 따라 현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

발열 폐렴, 호흡기 증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방문 전

-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방문 후

-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와
상담하세요. (24시간 상담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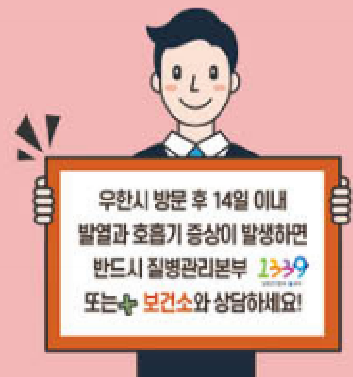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우리나라의 대응상황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 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 발생현황 모니터링 지속
- ✓ 우한시 착함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감시 등 검역 강화
- ✓ 유증상자(발열과 호흡기 증상) 대상 검역조사 실시
의심되는 경우 격리조치 후 진단 검사 시행
- ✓ 중국 보건 당국, WHO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 ✓ 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 내일부터 출근한다”

군포시가 추천하는 이달의 일자리 정보!

회사 정보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 임금
아이메디컴(주)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판매, 제조 ㉠ 군포시 엘에스로 172, 172한림휴먼타워612호 (금정동)	제조 단순 종사원 / 3명	㉠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 연봉 21,543,720원 이상
(주)풍산시스템 자동차부품, FTP장비 ㉠ 군포시 군포첨단산업로 35 (부곡동)	전기계측 제어 기술자 (전기패널, 계장 공정자동화전기 등) / 1명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연봉 35,000,000원 이상
(주)브라이트날리지 IOT 단말 ㉠ 군포시 엘에스로 153-18, 404호 (산본동)	펌웨어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 1명	㉠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 월급 2,000,000원 이상~2,200,000원 이하
(주)공진 산업용핸들조립제조 ㉠ 군포시 당정로 10 (당정동)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 1명	㉠ 0850 ~ 1750 ㉡ 연봉 26,000,000원 이상
(주)라인이노텍 형광등용 전자식안정기 및 LED컨버터(SMPS) 제조 및 판매 ㉠ 군포시 금산로 25-1 (금정동)	제조·생산 관리자 / 1명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시급 8,590원 이상
(주)유텔 유무선통신기기 ㉠ 군포시 군포첨단산업로 82, (주)유텔 (부곡동)	전기·전자공학 시험원 / 10명	㉠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 연봉 28,000,000원 이상
(주)금생활건강 생활용품, 가전제품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 군포시 공단로 149, 아이밸리 307호 (당동)	고객 상담원 및 모니터 요원 / 1명	㉠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 연봉 28,000,000원 이상 ~ 30,000,000원 이하
(주)두래 산업용중간재 도매, 제조, 무역 ㉠ 군포시 당정로 58 (당정동)	웹 디자이너 / 1명	㉠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 연봉 30,000,000원 이상
천미씨앤씨(주) 건축자재, 설비 중개업, 건축자재 컨설팅 ㉠ 군포시 산본천로 19-5, 210호 11단지 주공상가 (산본동)	자재·구매 사무원 (건설) / 1명	㉠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00분 ㉡ 연봉 22,000,000원 이상
(주)참메드 의료기기 제조 ㉠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24, 군포T밸리 A동 13층 (당정동)	전기·전자 부품· 제품 조립원 / 1명	㉠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 연봉 22,000,000원 이상

군포소식

군포시에서 들려주는 유익한 정보



01 군포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300만원 지원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 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2020년에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② 부부 모두 무주택자 ③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④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⑤ 대출금의 한도는 1억5천만 원 이내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보증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금융기관에서 공고일(2020. 2. 3.) 전 대출을 선행하고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는 군포시의 젊은 세대들을 영입하기 위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지원범위 등을 바라볼 때 획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점차적으로 지원 금액을 늘려 갈 계획으로 있어 신혼부부들은 군포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 등으로 많은 관심과 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출이자의 2%에 한하여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최대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 지원한다.

서운교 건축과장은 "군포시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 증대 효과와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널리 홍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건축과 ☎ 390-0735

02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여러분이 적극 찾아주세요!

기 간 2019. 11. 15. ~ 2020. 2. 29.(약 4개월)

발굴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
- 가족구성원의 질병·노령·장애 등으로 가구 내 돌봄 부담이 과중된 가구

신고접수처 복지정책과 무한돌봄센터, 해당동 주민센터

구분	연락처	구분	연락처
복지정책과	390-0610	재궁동	390-8648
군포1동 복지과	390-3629	오금동	390-8769
군포2동	390-8561	수리동	390-8517
산본1동	390-8636	궁내동	390-8788
산본2동	390-8643	광정동	390-8792
금정동	390-8524	대야동	390-8745

03 2020년 진로·진학 상담 운영

운영기간 2020. 1. ~ 12.

장 소 군포시청 시민방(2층)

상담내용 진로·진학, 학습 고입·대입 상담 등

운영방법 사전 예약 1:1 맞춤형 상담 실시(월별 40명 이내)

상담신청

- 신청기간 : 2020. 1. 1. ~ 12. 30.
- 신청방법 : 군포시 홈페이지(<http://www.gunpo.go.kr>)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인터넷 접수 ▶ 진로진학상담 신청]
- 문의사항 : 청소년청년정책과 ☎ 390-0788

04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기 간 연중 (토요일, 공휴일 제외)

대 상

-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스케일링 제외자 :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염, 결핵, 백혈병 등 전신질환자, 항응고제(와파린) 복용 중인 어르신

내 용 구강검사 및 상담, 구강보건교육, 스케일링, 불소젤 도포 [연 1회]

진 료 비 무료

문의사항 보건소 ☎ 390-8968



군포소식

군포시에서 들려주는 유익한 정보

05 「군포시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영쇼핑」입점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군포시는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쇼핑매체 기관(공영쇼핑)과 협력하여 입점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내용 ㈜공영홈쇼핑 내 공영쇼핑(온라인 및 모바일) 입점 지원

사업대상 군포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써 다수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공영홈쇼핑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몰인 공영쇼핑 내 가칭 「군포시상품관」 입점지원
- 공영쇼핑 상품등록을 위한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입점교육
- PC 및 모바일을 통하여 공영쇼핑 내 군포시상품관 광고 노출 지원

대상매체 ㈜공영홈쇼핑 온라인몰(PC/모바일)

입점기간 2020년 8월까지(예정)

문의 의 일자리정책과 ☎ 390-0284, 2379



공영홈쇼핑



인터넷

<https://www.gongyoungshop.kr/>



모바일

m.gongyoungshop.kr



06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관련 안내

2020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읍·면·동 공무원 또는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조사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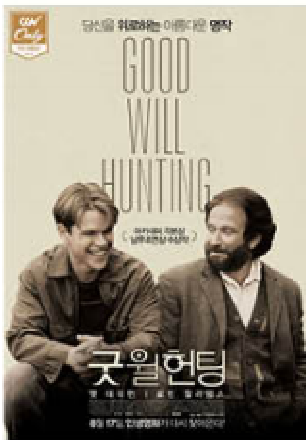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교육 · 문화

군포시의 교육 및 문화공연 정보를 알려드려요

2월 중앙도서관 수요일영화산책



굿 윌 헌팅(1997)

2. 5.(수)

장르 드라마
시간 126분
감독 구스 반 산트
주연 맷 데이먼
등급 15세 관람가



초행(2017)

2. 12.(수)

장르 드라마
시간 100분
감독 김대환
주연 김새벽, 조한철
등급 12세 관람가



히트 피커스(2016)

2. 19.(수)

장르 드라마
시간 127분
감독 데오도르 멜피
주연 타라지 P.헨슨
옥타비아 스펜서
등급 12세 관람가



한반도(2006)

2. 26.(수) **문화이벤트**

장르 드라마액션 스릴러
시간 147분
감독 강우석
주연 조재현, 차인표
등급 15세 관람가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장소 지하 1층 소극장
인원 선착순 80명 무료관람
문의 ☎ 390-8884

- ★ 상영 20분 전부터 입장
- ★ 관람등급에 따라 입장제한
- ★ 입장시 주차권 교환권 배부
(주차권 교환권 소지자 한하여 무료주차권 배부)
- ★ 음식물 반입 금지

☞ 군포시어린이도서관 2월 행사 안내

☞ 어린이도서관 2월 가족테마공연

공 연 명 풍이다

일 시 2020. 2. 15.(토) 오후 3시

대 상 군포시민 120명

관람방법 당일 선착순 입장 (2시부터 입장스티커 배부)

장 소 어린이도서관 소극장(3층)

극 단 명 극단 달빛

공연내용 돌들이 아범이 황부자네서 20년 동안 머슴으로 일한 품삯으로
“땅”을 받기로 하였는데 과연 어떤 땅을 받게 될까요?
도깨비를 만난 돌들이 아범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깨비깨비도깨비”는 어떤 소원을 들어 줄까요?
욕심 많고 심술궂은 황부자네와 순박하고 마음 착한 돌들이네
를 오가며 벌어지는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문 의 ☎ 390-8681

☞ 어린이도서관 2월 가족극장

일 시 2020. 2월 중 토, 일 15:00~

(단 2. 15. 토요일 가족테마공연 관계로 미상영)

장 소 어린이도서관 소극장(3층)

관람방법 매회 10분전 선착순 입장

문 의 ☎ 390-8679

☞ 어린이도서관 2월 문화가 있는 날 <영화가 있는 도서관>

일 시 2020. 2. 26.(수) 오후 2시~

장 소 어린이도서관 3층 소극장 (*10분 전부터 입장 가능)

상 영 작 <패딩턴> 코미디, 96분, 전체관람가

내 용 폭풍우에 가족을 잃은 고마곰 '패딩턴'은 페루에서 영국까지
‘나홀로’ 여행을 떠난다. 런던에 도착한 '패딩턴'은 우연히 브라운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가족을 찾아
나선다. 하지만 움직이기만 해도 사고 만지기만 해도 사고
1초에 한번씩 사고를 치는 '패딩턴'은 브라운 가족의 골칫거리
가 되고 만다. 한편, 말하는 곰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악당 박
제사 '밀리센트'는 호시탐탐 '패딩턴'을 노리는데…….

문 의 ☎ 390-8681

풍이다



2월 가족극장



패딩턴



의정소식

군포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려드려요

☞ 군포시의회, 새해맞이 사회복지기관·경로당 방문



군포시의회는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기관과 관내 경로당을 방문 신년인사를 나누며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0일, 시의원들은 복지 일선에서 고생 중인 관내 사회복지기관을 순회하며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그리고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보냈다.

1월 둘째 주부터 3주간 관내 120여 개의 경로당을 방문하며 시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의정활동도 수행했다.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고 소외되고 그늘진 경로당의 경우 더욱 격려하며 실존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건행 의장은 "매년 사회복지기관과 경로당을 방문할 때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소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 새로운 길을 찾게 된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폭넓고 다양하게 수렴된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군포시의회, '2019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결과보고회' 개최



군포시의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의원연구단체의 입법정책 추진 등 다채로운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12월 27일 정책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연구모임'은 신금자 의원을 대표로 하여 아이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구성됐다. 이 모임은 광명시 벤치마킹, 간담회 개최, 어린이날 캠페인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지난 10월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힘을 기울였다.

이길호 의원이 이끄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구모임'은 공공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방정부의 재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대안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군포시 실정에 맞는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

기 위해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두 단체 모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벤치마킹이나 토론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의 연구 활동을 전개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날 발표된 연구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과정에서 논의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성과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차후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로써의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건행 의장은 "이동친화도시와 사회적 경제 모두 현재 군포의 중요 현안들이라 연구결과와 향후 사업간의 연계가 중요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고 이어 "2020년에도 가치 있는 연구모임을 구성해 정책개발에 있어 풍성한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군포시의회, 동물복지 위한 토론회 개최



군포시의회의장 이진행은 1월 17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군포시를 만들고자 '동물 복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물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시의원들과 이학영 국회의원 시민단체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 및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좌장 성복임 의원의 진행 아래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김현지 팀장(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이 한국의 동물보호 현황과 군포시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동물권이 등장한 배경과 세계적 추세, 국내의 보호 현황, 군포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 등을 명료하게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민 주무관(서울시 동물정책팀)은 서울시의 동물복지 동향과 성과,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전략별 추진 계획 등을 소개했고 두 번째

토론자 손병석 과장(군포시 지역경제과)은 군포시 동물복지의 현황을 설명하며 앞으로의 동물복지 정책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은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을 발표하며 군포 첫 동물복지 조례안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어진 질의시간 중 시민단체 참석자는 "길집성 중성화 사업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다른 지자체의 선례를 참고해 공원 등지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관계 부서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군포시에 적합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성복임 의원은 "동물복지는 새롭게 떠오르는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이제 지역사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정책을 제시해야 할 단계"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귀근 의원은 "동물과 함께 상생하는 군포시로 거듭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며 "아직 조례 제정의 첫걸음만 댄 단계인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0년 회기 운영계획

회기별	기간	일수	주요 처리 안건	비고
제244회 임시회	2월 중	4	•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제245회 임시회	4월 중	10	•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 • 제1회 추경예산안	
제246회 정례회	6. 1. ~ 6. 19.	19	•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 • 2020년도행정사무감사 •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제1차
제247회 임시회	6. 25.	1	• 의장단 선거	
제248회 임시회	9월 중	9	•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 • 제2회 추경예산안	
제249회 임시회	11월 중	16	•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제3회 추경예산안	
제250회 정례회	12. 1. ~ 12. 21.	21	•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 •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2차

군포소식이 시민 여러분의 행복소식을 기다립니다

분야 시·수필(자유주제)

분량 1,100자 이내(10포인트 기준 A4 반장 내외)

참여 이메일 gunpo-city@naver.com 제출
(주소 및 연락처(모바일) 기재 필수)

* 원고가 게재되면 소정의 참여 보상(3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사전 연락 없음.

* 기고 제출 시 원고로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최근 6개월 내 원고 게재자는 독자기고 참여가 제한됩니다.

마흔여덟 살의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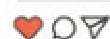
천천히 다가온 시간 속에
겨울 냄새가 난다
계획에 없이 시작된 나이는
세월의 침묵
묵상처럼 하루가 피고
잔을 들어 환호한 새해는
고요히 행진하는 진행형
겨울은 녹녹한 습기처럼
옷 속을 파고들고
나는 길을 걸으며 웃기를 여민다



이효건

쌍둥이 손주 사랑해

아들은 좀 늦게 결혼을 했으나 손주 소식이 없었
다. 손주 보고 싶은 생각에 집에 오면 재촉 해야지
했는데 몇 달이 지나서 오더니 "쌍둥이래요" 이 말
을 듣는 순간 흐뭇하고 기뻐다.
"그래 아가 몸조심 해라"라고 신신당부하였다.
또 몇 달이 훌쩍 지나 지난해 10월 어렵게 쌍둥이
를 출산했는데 큰 녀석은 여느리를 달고 작은 녀
석은 아들을 달았다. 너무도 사랑스럽고 예뻐다.
"그래 아가 수고 많았지? 엄마 되기가 이렇게 어
렵단다." 손주들 이름은 하준, 하진이라 짓고 기쁜
마음으로 출생신고도 하였다.
그리고 서울에 위치한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께 우
리 손주들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소원을 빌었다. "우리 하준, 하진 화이
팅! 사랑한다.~"



이태우



사랑하는 서영이의 초등학교 입학 축하하며~

어느덧 우리 둘째 서영이가 학교를 입학할 나이가 되었네. 태어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학교를 들어간다니 믿어지지 않는구나. 처음 산본에 와서 어린이집 갈 때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고 동네가 떠나가라 울던 게 아직도 생각나는데, 이제 다 커서 학교를 간다고 하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둘째라 언니만큼 신경을 쓰지 못해도 알아서 눈치껏 하나, 둘씩 해나가는 서영이를 보면 참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미안했어. 엄마, 아빠가 이제 서영이한테도 더욱 신경을 많이 쓰도록 노력할게.

교육 환경이 너무나 뛰어난 산본에서 서영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해.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특히,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잘 배려하는 어린이가 되면 좋겠어. 지금처럼만 하면 학교생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학교가면 이제 3학년인 가영이 언니도 더 자주 만날 수 있겠다. 언니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고~

서영이가 무럭무럭 커가는 것만큼 서영이를 더욱 열심히 키워야겠다는 엄마, 아빠의 책임감 또한 커지는구나. 서영이가 원하는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엄마, 아빠는 옆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싶어. 우리 서영이도 엄마, 아빠 믿고 항상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서영이 많이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거 알지?

서영아~ 다시 한 번 초등학교 입학 축하하고, 너의 멋진 초등학교 생활이 시작되기를 바랄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이승훈

소소한 행복을 줄 나의 2020년 버킷 리스트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많은 바람들을 이야기한다.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것에 더해 나를 위해 올해 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내가 사는 군포 대야미에 있는 누리천문대에 가서 별들을 감상해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얼마 전 tv프로그램에서 “별의 일주 운동” 영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비처럼 내리게 보여주는 환상적인 영상이었다.

그동안 내가 보았던 실제 별들은 정적이었는데 화면에 보여지는 수많은 별들은 살아서 파란 밤하늘을 여행하듯이 움직였다.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영상이었다.

그 영상을 보며 유명한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림이 생각났다. 하늘에서 별들이 소용돌이치는 매우 인상적인 그림이다.

고호는 어떻게 별들을 흐름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밤을 그 별들과 함께 했을까... “별이 빛나는 밤” 그림은 고호의 아름다운 감성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기회가 되면 고호가 보았을 법한 아름다운 별들을 감상해보고 싶다. 고호는 “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나도 틀에 박힌 생활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변환된 삶을 꿈꿔본다. 내가 사는 군포시에 천문대가 있으니 굳이 불빛이 없는 시골에 가지 않아도 별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올해는 꼭 기회를 만들어 쏟아지는 별들을 꼭 감상해 보고 싶다.

비록 고호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같은 그림은 그럴 수 없지만 내 마음에 내 기억창고에 예쁘게 저장해 놓고 싶다.



고남선



숨은그림찾기

그림 안의 여섯 군데 숨은그림과 이달의 수수께끼 정답을 찾아주세요.

숨은그림 삼각김밥, 음표, 오리, 오렌지, 조개, 막대아이스크림

수수께끼 학병 출신 마지막 광복군 101세 ○○○선생의 못다 이룬 꿈을, 군포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응원해주세요. (08~11페이지 참조)



정답제출

숨은그림과 수수께끼의 정답을 모두 표기 후 사진을 촬영해 2월 20일까지 01메일(gunpo-city@naver.com)로 제출해주세요. 다섯 분을 추천해(개별 공지)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 ※ 이메일 응모 시 이름, 주소, 전화번호 표시 필수
- ※ 대용량 사진 파일(5MB 이상) 첨부 금지
- ※ 최근 6개월 내 당첨자는 추첨에서 제외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동의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 당첨 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보유 후 파기

지난 정답

수수께끼 시민
숨은그림 구두, 부채, 펜촉, 안경,
외발자전거, 손가락, 화살표



02

CULTURE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수리산상상마을) 상상술 어린이 예술놀이터 '균형 탐색 등반하강 : 놀이술을 지나서 가자' 기간 ~3.28까지 09:00~18:00 (일요일, 공휴일 휴관) 장소 수리산상상마을 상상술 & 상상실현실 & 상상작업실 문의 수리산상상마을 문화사업팀 담당 390-3033		
2	3	4	5	6	7	8
	2020학년도 성인문해교육 느티나무학교 수강생 모집 모집 2020.2.3~선착순 마감 강좌 느티나무학교 성인문해교육 문의 390-3082		수요영화신책 영화 굿 윌 헌팅 일시 2020.2.5. 오후 3시 장소 중앙도서관		 → 2020 장월 대보름 <달달한 콘서트> 일시 2020.2.8 19:00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장쪽출	
9	10	11	12	13	14	15
	상상동지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기간 2.10.~2.28. 장소 어린이창의 예술센터 상상동지 문의 수리산상상마을 문화사업팀 담당 390-3036	취업연계 프로그램 직업상담사 2급(필기) 과정 운영 일시 2020.2.11.~2.18. (총 2회) 매주 화요일 13:00~17:00 장소 2층 자식마루 문의 390-3083	수요영화신책 영화 초형 일시 2020.2.12. 오후 3시 장소 중앙도서관			
16	17	18	19	20	21	22
구스타프 클림트 레프리카展 일시 1.7.~2.16.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제1, 2전시실			수요영화신책 영화 히든 피겨스 일시 2020.2.19. 오후 3시 장소 중앙도서관		 → Rock & Roll Concert Vol.32 에피톤 프로젝트 일시 2020.2.22. 19:00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장쪽출	
23	24	25	26	27	28	29
군포시생활문화센터 1분기(1~3월) 대관모집 대상 시민 누구나(3인 이상 동호회) 1~2인(개인연습실) 접수 2020.1.15(수)~2020.3.26(목) 이용 2020.1.18(토)~2020.3.31(화) 문의 390-3044 홈페이지 www.gunpoculture.or.kr			수요영화신책 영화 한반도 일시 2020.2.26. 오후 3시 장소 중앙도서관			

군포시 민원콜센터

궁금하세요? 불편하세요? 콜해주세요!
031) 392-3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운영안내

🕒 운영시간

- ▶ 평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30분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상담내용

- ▶ 여권, 세무, 교통, 민방위, 보건, 위생, 문화행사, 생활민원 등 단순·반복민원 안내

- 민 원 안 내 : 여권, 차량등록, 부동산신고, 생활불편신고 등
- 지 방 세 안 내 :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액, 가상계좌 안내 등
- 세외수입 안내 :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등
- 각종 정보안내 : | 시정정보 | 시정문의, 문화행사 등
| 관광정보 | 관광명소, 축제, 공연 등
| 생활정보 | 버스노선, 교통요금, 새주소 및 체육시설 등

시민과
소通하면
한다



군포시 민원콜센터 ☎ 031) 392-3000